

# 大韓射擊團

趙 東 成

(서울大 經營大 助教授)

南 永 鎬

(서울大 大學院 經營學科)

## 永東은행 사격팀의 출발

永東은행 사격팀(現 大韓射擊團의 前身)의 歷史는 金三珍씨의 영동은행 入社후의 經歷과 그 軌를 같이한다. 金씨는 1968년에 영동은행을 출발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영동은행은 이제까지 그의 첫 직장이자 유일한 직장이었다.

金씨가 입사할 당시 영동은행에는 '標的'이란 이름을 가진 사격클럽이 있었다. 이 클럽은 은행내에 조직되어 있는 취미단체 중의 하나였으며 회원들은 여가선용으로 일요일마다 모여서 공기총 사격 연습을 하곤 하였다. 金三珍씨는 68년까지 만 4년간의 군대시절을 육군 某부대에서 저격수 양성 敎官으로서 근무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격클럽 標的에 가입하게 되었고 당연히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는 標的에 가입한지 불과 3개월만에 회장에 선출되었고 전 회원은 그를 중심으로 뿔뿔 뿔쳐서 그 이듬해인 69년에는 최우수 활동 클럽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71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회원수는 68년의 10배인 100명 정도로 불어났으며 국내사격대회에 참가하여 공기총 부문에서 단체순위 4위의 영광을 안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외적 성과와 함께 金三珍씨의 보이지 않는 열성과 노력은 드디어 1972년에 결실을 보게 되어서 은행의 制度的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은행에서는 球技종목을 통괄하는 체육지도부에 사격과를 신설하였고 金씨는 대리 승진과 함께 사격담당코치로 轉職되었다. 이제 그는 순수한 아마추어 클럽 標的과는 성격이 판이한 본격적

인 체육팀의 코치가 되었으며 이 變身이 사격인 金三珍씨를 만든 계기가 된 것이다.

김삼진씨는 곧 그가 전에 있던 군부대에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선수들과 標的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모아서 10명의 공기총 사격팀(6명은 공기소총, 4명은 공기권총)을 만들어서 매일 6시간씩의 강훈련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강훈련의 결과는 금방 나타나서 창단 2년 만인 74년에 영동은행 사격팀은 국내에서 가장 큰 대회인 鳳凰旗쟁탈 전국 사격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영동은행 사격팀과 코치 金三珍은 매스컴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은행에서는 이 우승의 보답으로 그를 이제까지 空席이던 사격과 과장으로 승진시켰다.

사기가 크게 오른 영동은행 사격팀은 선수와 코치를 외부로부터 계속 영입시켰으며 이에 따라 훈련종목도 공기총 단일종목에서 小口徑소총, 자유권총, 속사권총 종목으로 계속 늘려 나갔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은행전용의 국제식 사격장 설치는 엄두도 못 냈을 뿐만 아니라, 사격에 필수적인 훌륭한 총기와 실탄의 구입도 충분치 못한 실정이었다.

##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준비단체 지정

영동은행 사격팀의 획기적인 발전은 76년에 이루어졌다. 76년 봄에 78년도 제22회 세계 사격선수권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확정됨에 따라 우수한 선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영동은행 사격팀은 세계대회 준비단체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체육회 및 은행관리단으로부터 예

〈表 1〉 國際式 스포츠 사격경기 종목

구 분		사거리	口 徑	표적종류	간단한 경기방법
소 총	大口徑 3 자 세 (big bore three position)	300m	.5in	원형표적	복사, 슬사, 입사 각 자세당 40발사격(5시간 15분)
	小口徑 3 자 세 (small bore three position)	50m	.22in	원형표적	경기 방법은 大口徑과 동일
	空氣 소 총 (air rifle)	10m	—	원형표적	他종목과 달리 공기의 힘으로 발사
권 총	自由 권 총 (free pistol)	50m	.22in	원형표적	경기자세에 대한 제한없음
	速射 권 총 (rapid pistol)	25m	.32in	인형표적	5개의 인형표적에 연속 사격, 4초, 6초, 8초 시리즈 각 40발
	센타 화이어 권 총 (centerfire pistol)	25m	.32in .38in	원형및 인형표적	완사, 급사 시리즈가 있는데, 완사는 자유권총과 급사는 속사권총과 동일
	空氣 권 총 (air pistol)	10m	—	원형표적	他종목과 달리 공기의 힘으로 발사
移動標 의종목	이동 멧돼지 경기 (running boar game)	50m	.22in	이동멧돼지	망원렌즈 부착 소총으로 수평이동 멧돼지표적에 사격
	트랩 (trap)	—	2.5cm	flying clay	비행중인 접시를 엽총으로 사격
	스키트 (skeet)	—	2.5cm	flying clay	트랩과 마찬가지로 접시방출 위치와 시대가 틀림

산상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영동은행에서는 급히 사격담당이사를 발령하였으며 국제식 사격장을 은행 사격팀의 기존 사격장 부지에 설립하였다. 총기, 실탄, 표적지 및 사격기재도 스미스웨슨社, 래밍톤社, 윈체스터社, 안슈츠社, 브로닝社, 월써社 등 歐美 유명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국제식 스포츠 사격의 전 종목 참가를 목표로 엽총(shotgun)종목의 트랩 및 스키트사격과 이동 멧돼지 경기 종목이 추가되었다(〈表 1〉참조).

이러한 인사이동 및 예산상의 지원과 함께 조직면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영동은행장의 관할이었던 사격과는 영동은행과 전혀 별개의 조직체로 탈바꿈하여서 그 이름을 ‘大韓射擊團’으로 개칭하였으며 예산 편성, 집행, 통제 면에서 獨立運營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단장에는 영동은행의 부장이었던 李俊基씨가 임명되었으며 그 밑에 부단장, 훈련과장, 지원과장의 직제가 편성되고 金三珍씨가 훈련과장에 임명되었다.

金씨의 활약은 대한사격단에서도 대단하여 우수선수와 코치를 선별하는 작업에서부터 사격훈련제도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金씨의 손이 안간 곳이 없을 정도였다.

### 李俊基부장의 사격단장 취임

76년 봄에 은행의 이사급인 대한사격단 初代 단장으로 취임한 李부장은 충분한 예산상의 지원을 받으면서 선수 및 코치의 숫적 증가, 코치제도의 정착, 선수의 기록향상, 복지시설 및 사격단의 조직면의 완비를 단기간에 끝마치는 등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특히 李단장은 제도면에서의 완비를 추구한 까닭에 그동안 가족 같았던 사격단의 오붓한 분위기를 깬 것은, 반면 규율의 강화 및 기록향상자에 대한 영웅적 대우(한국신기록 보유자 사진이 대한사격단 현관에 진열되어 있으며 맞은 편 보도판에는 기록향상자의 이름과 기록이 매달 소개됨), 성적부진자에 대한 과감한 淘汰, 월별 단장배 대회의 신설 등 기록위주의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조직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李단장은 은행계에서 알아주는 거물이었다. 40대 초반에 완고한 은행세계에서 이사로까지 발돋움할 정도였으며 은행의 어느 부서든간에 운영이 잘 안 되면 그를 그 부서로 전직시켰고 그는 은행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 부서가 잘 움직

이도록 만드는 등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경력을 가진 **李**단장이 취임할 때부터 선수, 코치 이외의 모든 근무인원은 밀어닥치는 손님을 접대하느라라고 분주하였으며, **空**地는 단장 전용 정구장으로 변하고 식당의 단장용 테이블은 손님접대용 대형 테이블로 바뀌었으며, 단장실 내의 바닥은 카펫트가 깔리는 등 대한사격단이 사격단체인지 별장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다.

이러한 단장의 性向은 자연히 부단장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단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부단장을 통해 훈련과장—감독—코치—선수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전달되었고, 부단장은 그 지시 내용의 수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코치와 선수들은 놀라움 속에서 지시된 명령에 따라 묵묵히 사격훈련을 수행해 나갔다. 코치와 선수들이 이러한 명령에 異意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단장의 지시가 너무 강력한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시사항이 非사격적인 내용(예를 들면, 사격 훈련시에 종목과 이름을 등 뒤에 써붙이라는 등)이었기에 반발할 필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李**단장의 지휘체계가 선수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가장 큰 이유는 **李**단장이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선수들의 기록향상을 위한 물질적인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즉 78년 한해 만에도 대한사격단은 해외의 국제대회에 2번, 아시아대회에 2번 참가하는 등 해외전지훈련을 쌓은 선수만도 20명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수들은 괄목할만한 기록향상을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78년의 세계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대한사격단은 계속 동일한 조직체제로 운영되어 나갔다. 즉 예산상의 지원은 체육회와 은행관리단에서 돌보았으며 인사권은 영동은행에서, 예산상의 편성과 집행은 자체적으로 움직여 나갔다.

## 세계 사격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나서

그러나 단장—부단장—훈련과장—감독—코치—선수로 연결되던 명령계통은 79년 9월 1일 부단장의 轉職으로 인하여 깨지고 부단장직이 쪼

석됨에 따라 훈련과장체제로 바뀌었다. 이 때쯤 단장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外交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어 團內 일에는 무관심해졌고 모든 일은 훈련과장이 **金三珍**씨 선에서 처리되었다. 훈련과장은 이미 한국의 사격계에서 10여년간 잔뼈가 굵은 몇 없는 권위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격단 관리에 대한 단장의 무관심 속에서도 그 체제를 무리없이 밀고 나아갈 수 있었다.

**李**단장은 비록 사격장을 별장으로 바꾸어 놓긴 했지만 各界 人士들로부터 많은 誠金을 끌어냈으며 따라서 풍부한 예산으로 많은 시설 및 기계의 도입과 복지시설의 확충을 꾀할 수 있었다. 또 **李**단장 자신도 80년 2월 1일부로 영동은행으로의 복귀와 함께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團內的 간부, 코치, 선수들 역시 단장의 榮轉을 환영하였다. 訓練課의 감독과 코치들은 단장이 그동안 도입한 여러가지 제도중에서 사격과 관계 없다고 생각된 부분들을 개선시켜 단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고, 支援課는 더 이상 단장 뒤치다꺼리를 안해도 되리라고 기대하였으며, 기록 저조자나 기록비향상자들은 언제 도태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일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新任團長 權天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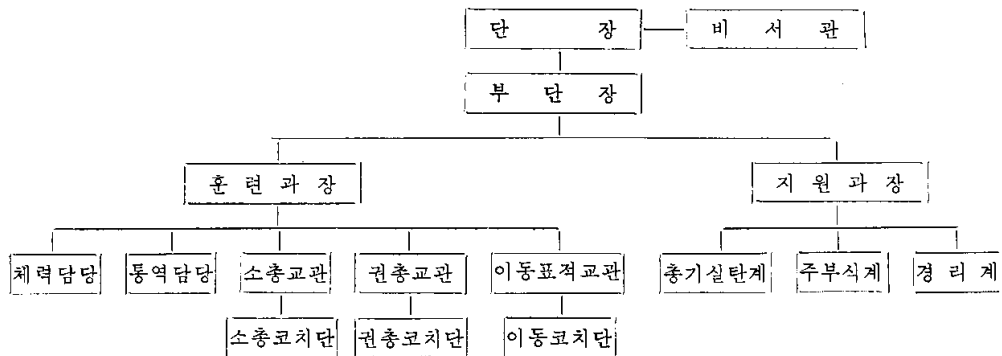
신임단장 **權天河**씨는 69년부터 6년간 영동은행의 관리담당이사직을 맡아오다가 75년에 은행내 연수원 원장으로 전보되어 大過없이 5년간을 지내온 자로서 부하직원들로부터 ‘충청도 양반’ ‘부처님 원장’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과묵하고 끈기있는 사람이다.

연수원장 5년만에 한 단계 아래직급인 사격단 단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권단장은 자신의 앞날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었다. 취임사에서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대부분의 단원들은 이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본인은 지난 5년간 연수원장으로 재직했을 때…… 中略……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격단이 나의 마지막

〈表 2〉 대한사격단의 조직도

80년 3월 현재



〈表 3〉 80년 3월까지의 대한사격단의 발전

구분		76	77	78	80.3
단장		金 三 珍	李 俊 基	李 俊 基	權 天 河
선수인원	세계수준(10위이내)	—	1	2	4
	아시아수준(3위이내)	2	5	10	18
	양성 및 훈련과정	18	49	58	56 { 양성 : 37 훈련 : 19 }
	계	20	55	70	78
코치인원	3	10	12	11	
훈련종목	6	17	17	17	
복지시설	국제식사격장건설	기숙사건립 실내체육관	탁구장, 당구장, 정구장 주 1회 영화상영	음악감상실	
특기사항	영동은행소속	대한사격단발족	세계사격대회	신임단장취임	

작품이라는 심정으로 입하겠으며 여러분은 내일부터 본인의 모습에서 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권단장은 부임 이튿날부터 사격장에 나가서 훈련상황, 선수의 자질 파악 및 코치의 지도방법 등을 관찰하는 한편, 부단장(단장 취임과 동시 취임), 훈련과장으로부터 현실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表 2〉와 〈表 3〉은 이러한 보고 차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권단장은 부임시 과장급의 고참비서관 李正九 씨를 데리고 왔는데 李씨는 연수원 시절부터 권단장을 모셨으며 권단장은 그를 통해 많은 비공식 정보를 접할 수 있었으므로 그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었다.

李씨는 곧 활동에 착수했다. 그는 자기와 入行동기인 主副食係長, 통역담당관 등을 통해 얻은 團內분위기와 몇몇 선수 및 코치들과의 대화

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1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권단장에게 보고하였다.

### 보 고 서

일반적으로 선수들의 사기는 저조한 상태이며 훈련과정과 양성과정의 많은 선수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다. 그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과정 선수의 도대기간이 너무 짧다. 평균적으로 6개월의 훈련 기간동안에 실시하는 2번의 정식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대 여부가 결정되므로 장기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

둘째, 1년에 평균 4회 정도 해외전지훈련(훈련지는 미국이나 서유럽)을 떠나는데 그 구성원은 언제나 전문과정의 고참선수들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참가치 못하는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다.

세계, 해외전지훈련시에 외국 코치의 지도를 받는 현재의 방법은 그 혜택이 몇몇 선수에게 밖에 돌아가지 않으므로 외국코치를 國內로 초빙하여 훈련 및 양성과정 선수들에게도 우수한 기술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재, 크레이 종목(엠포종목)은 총기 및 실탄에 소모되는 경비가 어마어마한데, 유난히 크레이 선수들의 도태율은 낮은 편이다. 크레이 선수 1인이 사용하는 경비를 가지고 소총훈련과정 선수 10명 정도는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코치들이 전문과정 선수들에게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는 반면 훈련양성과정 선수들에게는 지나치게 강압적인 지도방법을 사용한다.

여섯째, 코치들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흡수에 저항적이다. 이 경향은 코치들의 평균 학력이 중졸인 점을 감안할 때 자신들의 학력 콤플렉스의 발로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단내 분위기 개선과 기록향상을 위하여 전문과정 선수들에 대한 우선지원체제에 수정을 가하여야 하되 우수한 신인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 權단장의 施政目標 및 훈련과정의 반발

취임 1개월 후인 3월 1일 權단장은 대한사격단의 전 단원을 모아놓고 80년 施政目標 및 方案을 발표하였다.

### 80년 施政目標 및 方案

1. 예산낭비요소의 과감한 척결
  - (1) 아시아수준 선수들의 나태와 記錄非向上 요인제거 및 선수도태
  - (2) 해외전지훈련 선수의 정예화 및 회수감축
  - (3) 훈련과정 선수들의 질적·양적 증대
2. 코치 및 선수들의 資質향상
  - (1) 코치 능력평가제도 신설
  - (2) 외국코치 초빙회수 증가
  - (3) 외부코치 및 선수들의 迎入 고려
  - (4) 사격종목별 해외서적 번역 소개
3. 人和 團結
  - (1) 감독, 코치, 선수의 上下관계 止揚
  - (2) 선수들의 불만처리제도 常設化
  - (3) 부단장 및 훈련과정의 月 1회 전 선수 및 코치 면담
 훈련과정은 단장의 발표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자신이 보고한 적도 없는 세세한 사항을 부임한지 한달 밖에 안되는 단장이 손바닥 드러다 보듯이 알고 있다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곧 李正九가 정보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훈련과장은 이에 몹시 불쾌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서는 당연히 자기의 소관인데 이를 남에게 가로채었다는 분함과 아울러 李비서관의 보고내용에 기존문제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감정을 심하게 자극하였다. 그는 지난 1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장의 시정방안에 정면으로 맞서서 다음과 같은 異意書를 단장에게 제시했다.

### 訓練課長の 異意書

1. 團豫算은 <表 4>와 같이 크레이 종목의 실탄구입에 가장 많이 할당되는 바, 예산낭비인원의 淘汰는 이 종목에 표적을 맞춘 말이라고 생각될. 그러나 이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달리 先天的 소질보다 10년 이상에 걸친 反復훈련에 의하여 기록이 올라가며, 海外選手 평균연령이 36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훈련기간이 4년인 우리선수들에게는 장기간의 기록관찰이 필요하며 기존 12명이하의 인원감축은 국제대회의 團體팀(트랩, 스키트 각 4명씩) 구성상 무리한 조치가 될 것임.
2. 양성선수 및 전문과정 選手들의 인센티브는 國際大會參加인 바 現 15명정도의 年 4회에 걸친 해외전지훈련의 인원 및 회수 축소는 기록 向上 중에 있는 양성과정 선수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 줌.
3. 지금까지 아시아 수준이상(專門과정) 選手들의 淘汰가 없었던 바 長期的으로는 신진選手 양성을 위하여 기록부진자의 도태가 필요하지만 短期的으로는 團內 평균성적이 하락되며 전문과정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4. 해외 코치 초빙시에 現 1년에 산의 4%라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며 기존 코치들의 불만이 더 없이 증대되고, 選手들의 코치에 대한 신뢰감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전지훈련시 기간연장을 통하여 海外코치 지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5. 사격스포츠의 成績向上은 신체적 特性 30%, 기술적 완숙 30%, 정신적 단련 40%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통계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급격한 정책변화는 선수들의 정신적 不安과 動搖를 야기시켜 상당한 기간동안 기록 低調를 면할 수 없음.

〈表 4〉 種目別 實彈·標的紙 수입사용액

(수입할당 총예산 \$250,000)

구 분	해 당 종 목	선수인원	실탄사용액 /1인 /1년	총실탄사용액 /1년	표적지사용액 /1년	표적지 및 실탄 사용액/년
소총탄	공기소총 종목을 제외한 전 소총종목과 런닝보아	27	\$ 750	\$21,250	\$ 2,700	\$ 23,950
권총탄	공기권총을 제외한 전권총	20	\$ 750	\$ 15,000	\$ 2,000	\$ 17,000
공기탄	공기소총·공기권총	19	\$ 200	\$ 3,800	\$ 2,850	\$ 6,650
엽총탄	크레이종목	12	\$ 7,500	\$90,000	\$36,000	\$ 126,000
총 계		78				\$ 173,600

훈련과장의 문제점 제기에도 불구하고 權단장은 자신이 발표한 계획을 계속 밀고가겠다는 확신을 보였다.

### 崔선수의 반발

權단장은 5, 7, 9월의 세번에 걸친 전문과정 선수와 크레이 선수들에 대한 과감한 도태, 해외전지훈련의 축소, 외국코치 초빙, 훈련생의 增員 등을 단행하였고, 선수들의 기록은 훈련과장의 예상대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전문과정 선수들의 기록은 거의 전부 침체속에 빠져있었다.

崔浩成선수는 크레이의 트랩종목에서 아시아 및 한국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0월 현재로서 195점(200점 만점)이라는 拔群의 실력을 가진 대한사격단의 자랑이었다.

그러나 崔선수의 사격이외의 생활은 다소 무절제했으며 토·일요일에는 술에 만취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他 선수들에게 사격단에 대한 자신의 불평을 털어 놓기가 일쑤였다. 10월초 훈련과장과의 정기적인 면담시간 중 崔선수는 團에 대한 불만을 훈련과장에게 말했으며 훈련과장은 이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단장에게나 직접 말해봐라’하고 직접면담을 중용하였다.

1980년 10월 15일은 사격단 창설기념일이며 선수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술도 사격단에서 직접 장만해서 코치, 선수 및 전직원들이 함께 마시는 날이었다.

崔선수는 그 전날 前酌이 있었는지 그날 오후

가 되어서는 이미 만취상태가 되었다. 그 상태로 단장 면담을 신청하러 비서관실에 들어갔지만 급기야는 면담을 말리는 비서관과 崔선수의 싸움이 벌어졌으며 기물이 파괴되고 비서관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단장이 나와서야 싸움이 끝났다. 그러나 崔선수는 그 여세를 몰아 단장에게 대든다. “야! 권단장, 너는 왜 이 고요한 세계를, 아니 大대한사격단을 망치는 거냐? 나는 너랑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다. 나는 전 선수를 대표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막는 바람에 내가 한대 갈렸지.”

부단장, 훈련과장 등이 올라와서 끌고 내려가는 통에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되었다.

### 선수 위원회의 개최

사건 후 이틀만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위원회는 단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부단장, 양과장, 비서관, 전 감독 및 코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서관은 이틀동안 자신의 정보망으로부터 수집한 崔선수의 非行을 위원회 석상에 제시하였고 부단장 및 지원과장으로 부터 제명처분의 同議를 받아내었다.

훈련과장은 강경하게 맞섰다. 만약 崔선수가 선수자격을 잃는다면 자신도 사표를 제출할 각오임을 밝혔다. 감독과 코치들도 훈련과장 편임을 밝혔으나 지위가 지위인지라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단장은 休會를 선언하면서 休會후 자신의 결정을 발표하겠노라고 말하였다.